

## 2021 5·18문학상 신인상 소설 심사평

올해 응모된 100편의 단편소설 모두 5·18문학상의 취지와 정신을 고민한 흔적들이 역력했다. 무엇보다 역사적 사건을 소설이라는 문학적 양식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란 필연적으로 창작자 나름의 시선과 사유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요컨대 개별 결과물들의 미학적 우수성을 따지기에 앞서, 소설을 쓰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그 가치를 확장시키는 데 일조하게 된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100편의 응모작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100편의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더 가지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심사위원들의 고민을 깊게 만든 이유는 이 응모작들이 가진 ‘문학상’과 ‘신인상’이라는 또 다른 제도적 특성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썼는가’를 살피는 일에 비해 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재현해냈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점이 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곧 응모작들마다의 사료적 가치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소위 심사 기준의 변별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그 구성적 미학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기준에서 주목한 작품들은 <아버지의 지갑>, <몽치>, <진눈깨비의 날>과 <검은 숲에 서서>, <수족관엔 미늘이 없다> 등이었다.

우선 <아버지의 지갑>은 ‘동생’이라고 불리는 불특정한 인물에게 들려주는 ‘나’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작품이었는데, 무엇보다 이야기의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했다. <몽치>는 군부대를 배경으로 소문처럼 전해지는 일명 ‘핵무기 사건’에 대한 여러 판본을 들려주며 ‘진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나아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로 그 사유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했다. <진눈깨비의 날>은 518민주화항쟁에 대한 후일담 소설로 ‘사내’의 비극과 사연을 풍부하게 마련한 작품이었다.

당선작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한 작품은 <검은 숲에 서서>와 <수족관엔

미늘이 없다> 두 편이었다. <검은 숲에 서서>는 실존하는 미술 회화를 모티프로 삼아 소설적으로 근사하게 형상화한 작품이었다. ‘식민 지배’를 겪은 ‘망명자들의 모임’이라는 상상력도 훌륭했지만, 인물 간의 대화 속에 숨겨진 맥락이 특히 매력적이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수족관엔 미늘이 없다>를 선택한 것은 앞선 작품들의 모자람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작품이 가진 고유한 매력 덕분이었다. 긴 호흡과 더불어, 민물장어를 손질하는 과정을 집요하고 세밀하게 포착하는 점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인물들의 숨겨진 사연을 독자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작가의 만만치 않은 필력을 느끼게 만들었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모든 응모자에게는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한다.

2021년 4월 21일

5·18문학상 신인상 소설 심사위원

송은일, 임 현